

요약 논문: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 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장성민

출처: 작문연구(Writing Research) 2023/03, Vol. 56, pp. 07-34.

## I. 서론

챗GPT(ChatGPT)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하나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이해(분류, discriminative)'가 아닌 '표현(생성, generative)'의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공신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챗GPT의 출현에 이르러서이다.

교육 또는 평가 맥락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세계에서의 기술 발달을 외면한 채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것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타당한 접근일 수 있다.

## II. 생성 인공지능의 특성

### 1.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에세이 작성

챗GPT의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에세이 작성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서-본-결'의 문단 구성에 대한 의식이 두드러진다. 생성 인공지능 기술의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은 초·중·고·대학의 학습 필자가 참조할 수 있는 예시 글의 구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 2. 지식 변형, 지식 창출의 글쓰기 수행

챗GPT는 기존 텍스트에 담긴 지식을 변형하여 과제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자의 실제 상태에 관계 없이 높은 수준의 내용 지식, 담화 지식을 반영하게 된다. 챗GPT의 활용은 선발, 분류를 위한 작문 평가 상황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여 이를 재진술하거나 요약하도록 하는 과제는 그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 3. 딥러닝 기반의 잘못된 정보 조합 및 재생산

챗GPT는 기존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사전 훈련된 결과라는 점에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출처 정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살피지 않고 챗GPT의 결과에 의존하여 글을 작성하다 보면 그 는 틀린 정보의 글을 작성하게 될 우려가 높다.

## III.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작문 능력

### 1. 질문 생성 능력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에서 기계에 의한 텍스트 생성은 인간이 투입한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식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정보 검색이 전통적인 작문 능력 가운데 내용 생성의 위상을 대체하였다면, 챗GPT와 같은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서는 그 초점이 질문 생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 2. 글의 중간 산출물에 대한 메타적 읽기 능력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로부터 생성된 초고를 그대로 최종 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자신의 이해에 비추어 메타적으로 읽고 점검,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필자가 아닌 다른 도구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일회적 과정의 결과를 작문의 최종 산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대중의 거부감이 갈 수록 더 커질 것이다.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대체'가 아닌 '도구'인 것이다.

### 3. 출처 확인 및 보강 능력

필자가 출처 확인을 통해 자신의 글에 포함될 내용 가운데 거짓 정보가 없는지,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보인지 등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은 본래 수행하던 글쓰기 이외의 다른 활동과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전지식을 활용하거나 자료 검색, 메타적 성격의 에세이(비평문, 성찰일지) 작성, 전문가 면담, 동료 학습자와의 대화 등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 IV. 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에 대한 전망

##### 1. 기존 작문교육 담론과의 연결

###### 1) 작문의 회귀적 속성에 대한 인식 강화

챗GPT는 초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초고 쓰기 이후의 인지 처리 과정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의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기초 문해력의 중요성 강화

인공지능 기술이 없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간단한 글조차 쓰지 못하는 구성원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해력 격차가 교과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학습 격차나 교육 격차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과의 대화가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는 행위로부터 촉발되기 때문에, 생성 인공지능 기술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문해력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 3) 저작권과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 고양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원래 글(original writing)로 가정되던 것과 기계로 인해 생성된 글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저작권과 쓰기 윤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논쟁을 마주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자동 생성된 텍스트가 일상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원래 글이 지니고 있던 위상과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도 있다. 글이나 글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글의 독창성이나 질적 우수성이 아니라, 콘텐츠 생성의 속도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Kelly, 2022).

##### 2. 작문교육 담론의 혁신

###### 1) ‘필자’와 ‘작문’에 대한 규정 변화

필자의 역할과 위상이 전통적인 ‘문제 해결자’에서 ‘자기조절학습의 주체’로 옮겨간다는 것은, 실세계에서의 작문 수행 과정에서 필자가 글쓰기의 인지적 과정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필자와 기술(technology) 사이의 상호작용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작문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작문은 인간(필자)과 기계(인공지능 기술)의 협력적 작업으로 명실상부하게 그 위상을 자리잡게 된다.

###### 2) 작문 과제의 맥락 다원화

교육과 평가의 국면에서 활용되던 작문 과제의 맥락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교육과 평가의 국면에서 교사 또는 평가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작문 수행의 맥락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 3) 변혁적 역량과의 관계 정립

에세이 작성에 특화되어 있어 작문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작문교육의 내용과 역량 간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 V. 결론

이 연구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작문 능력을 탐색하고, 초·중·고·대 학의 작문교육 현장과 학문 공동체에서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배격하거나 외면한 채 전통적인 교육 접근만을 고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초점이 ‘이해(분류)’에서 ‘표현(생성)’으로 옮겨간 것처럼, 인간이 기술의 편의에서 장점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일 것이다.

작문교육 현장과 학문 공동체 구성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자’와 ‘작문’에 대한 유연한 관점을 지니는 일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작문교육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기존 담론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조될 지점과 문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혁신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